

위대한령도자 만수대창작사를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창작사의 구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보신
다음 공훈조각창작단을 비롯한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미술창작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각창작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위대한 수령님의 대리석상들을
보시고 회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조각, 금속공예를 비롯한 작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화 《주체철완성
을위해로고를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회천



의 숨결》을 비롯한 조선화작품들을 감상하시고 모든 작품들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발전하여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술형식인 조선화의 기법에 맞게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조선화뿐 아니라 유화 《장자강의 저녁》, 《동해의 아침》, 《김장월》, 콘레화 《황해제철소 1강철직장에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품들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장려하는 미술형식에 담아 주제와 사상적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게 홀륭히 형상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는 참된 미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파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교양수

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미술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뿐

련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른 단위들의 창작가들이 그린 특색있는 작품들을 보시고 미술창작은 오늘 전문가들뿐아니라 군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과정에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이 나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풍만한 회원은 뛰여난 미의식을 지닌 우리 인민의 풍부한 문화정서적소양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한 미술작품들은 국보적가치가 있는 귀중한 재보들인것만 큼 전시를 잘하여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체로 홀륭히 건설한 문화회관과 드넓은 구역에 응장화려하게 일떠선 창작기지들을 돌아보시고 만수대창작사가 굴지의 미술창작기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세계적인 대창작기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창작사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홀륭히 꾸린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창작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기간 창작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조선화, 조각, 수예품, 공예품을 비롯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미술사에 특기할 공적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인 미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교양과 정서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주체미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 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창 작가들이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인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

지지도를 마치신 후 만수대창작사 종업원

들과 함께 창작사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

름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예술소조원들은 공연무대에 너성중창 을 더욱 굳게 잡으리》，시와 합창《대를 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홀륭

《전선천리 야전차 달리네》，녀성2중창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 여러 가지 형 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

을 표시하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예 하시였다.

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진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먼저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설을 들으신 다음 파자, 사탕, 국수, 빵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곳을 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식료품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파자의 맛까지 헤아려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 부른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치렬한 돌격전을 벌립으로써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협심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이악하게 투쟁할 때 현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락을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도내 인민들의 식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높은 애민정신을 가지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평가하시였다.

최근년간 도처에 현대적인 기초식품공

간장작업반, 기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갖가지 기초

식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이 힘과 지혜를 합쳐 모든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높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합의 장점임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기대들마다에서 쏟아져나오는 먹음직스러운 장점임들을 보시고 생산자들이 뜨거운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맛좋고 영양가높은 부식물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장점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다 즐겨 만들어먹은 대중식료품인 동시에 자기지방에서 나오는 농토산물을 가지고 얼마 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협동조합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부식물들을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점임을 비롯한 부식물들을 많이 생산하는것은 너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인민에 대한 협심적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더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월에 비낀 애국장정의 세계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마음 한없이 성스러워지는 주체 100년의 장엄한 해동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선군조선이 새해의 출정식을 어떻게 하자는가를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뜻깊은 새해 첫아침 당보 1면을 짹재우며 노래 《승리의 길》이 실렸던 것입니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훌린 피 붉은 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멀치리...

지금껏 많이 들어왔고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군 한 노래였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보다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질 2011년 1월의 첫아침에 당보에 실린 노래는 저의 가슴에는 이전에는 미쳐 다 새겨져지 못했던 감동이 세차게 파도쳐왔습니다.

온 누리에 쟁쟁 울려펴진 이 노래는 그대로 인민이여 승리를 믿으라는 선군령장장군님의 심장의 메아리였고 세계여 조선이 어떻게 대를 이어 위대한 백두산장군들을 따라 혁사의 폭풍을 파감히 헤치며 승리하는가를 보라고 웨치는 천만민민의 흐성이었습니다.

1월의 이 노래속에 실리여오는 절세의 위인들의 뜨거운 애국장정의 세계를 미흡한 편치로나마 여기에 펼쳐보자 합니다.

*

새 출발의 1월, 백두산눈보라가 세차게 물어치는 1월,

조선은 이 1월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설한 풍스산한 원한의 페바다에서 산천도 사람들도 몸부림 치던 수난의 세월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혁명의 첫걸음이 1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체 14(1925)년 1월 22일, 바로 이 날은 일제식민지통치에서 도탄에 신음을 하는 조선의 운명을 구원할 큰뜻을 품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역사의 날이었습니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1월의 눈보라길을 헤쳐 압록강을 건너신 어버이수령님.

옛적에 남이장군은 남아 20세에 나

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후세사람들이 대장부라 부르겠는가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지만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그때 우리 수령님의 나이는 10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신 수령님의 작은 어깨에 걸미지기에는 삼천리 강과 2천만계의 운명이 너무도 무거운 짐이였습니다.

보통 사람같으면 그 나이에 부모동생들을 위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져도 장하다 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가정과 부모형제들이 당하는 수난에서 겨례의 운명을 먼저 보시였습니다.

하여 한 가정의 아들이기 전에 민족의 아이들이 되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기 위한 퍼어린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눈보라치는 나라지경에서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차마 결음을 떼지 못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심痛과 고뇌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암록강을 건는다.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참으로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도 울려오는 암록강의 맹세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이 나라 만민의 혁신과 후손만대를 책임지실 엄숙한 선서였고 위대한 애국의 심장이 내린 삶의 결정이었습니다.

1월의 광복의 천리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눈서리에 파묻혀 천신만고 피를 받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양춘을 만날수 있었으며 장백산 출기줄기와 암록강 굽이굽이의 퍼어린 자욱과 더불어 조국해방의 환희가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과 1월이 맛은 그 인연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의 한생에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은 1월의 감회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는 정말 가슴아픈 시련의 시기였다고, 수령님을 잊고 가슴터져오는 일들을 겪던 그때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시며 눈물겹게 회憶하시는 고난의 행군, 그 준엄한 행군을 강행해 나가시던 1월의 사연깊은 언덕이 솟아있습니다.

정밀이지 가혹하고 잔인한 겨울이였습니다.

5천년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몸부림치던 이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제국주의 원쑤들은 군사적위협과 봉쇄, 압살의 집요한 포

위망을 형성하여 분별없이 덤쳐들었습 니다.

『북조선의 종말』은 빨라서 3달, 늦어서 3년이라는 『봉피』의 시간표까지 짜놓고 원쑤들은 기승을 부리였습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저는 신념의 기둥, 희망의 하늘이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하늘이 통체로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더우기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의 광란으로 조국이 처한 시련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신 우리 장군님의 심痛은 과연 어떠하시겠는가를 생각할수록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1995년 1월 1일,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었던 그 시각 피눈물을 속에 새를 맞이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바로 다박술초소에로 연결히 발걸음을 내짚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타케 장군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병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맞이공연을 준비하던 아이들은 눈물의 노래안하고 장군님을 목에 불렀고 숨죽은 공장에서, 불빛꺼진 거리와 마을들에서, 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포전에서 우리 인민들은 이제나저제나 장군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는분이시여서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도 전선으로 향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통찰한 아픔을 감당하셔야 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그 시절의 1월에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사의 맹세 암으로 인민의 리상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는 무릉도원으로 꽃피워주시는 우리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다 드릴수 있겠습니까.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멀치리

이것은 하나의 노래구절이기 전에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신념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늘 주체의 선군위업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선군승리의 만세소리, 강성대국진군의 발구를소리가 높이 울려펴지는 오늘에 그날의 이름없던 다박술초소에서 어떤 위대한 전변과 승리가 예정되어있었는지를 온 세계는 놀라움과 격동속에 깨닫고 있습니다.

남녘땅 철창속에 철쇄로 묶이운 몸이지만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를 찾으셨었던 그때부터 해마다 1월

이면 그이의 선군발걸음을 우리 신념의 백두산혈통이 다르구나, 짚읍과 폐기의 백두산혈통을 따라세우고자 김방안에서 『백두산고향집에로의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평도 뜻되는 좋은 김방에서 하루 3천보씩 1년을 달리느라면 다음해 1월까지 3천리를 달리는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백두산에로의 마음의 행군을 범주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애국하는 가문에서 만고절세의 영웅, 빨찌산령장들의 정기를 이어받으신 그분이라면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의 운명을 마음놓고 의탁할수 있다고 환호하며 기뻐한것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고 그러면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게 다져졌습니다.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고 선군정치가 있어야 한다는것이니 저지니였던 그때마다 저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고 그러면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게 다져졌습니다.

벌써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정설처럼 굳어진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속명론을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내려다보는 랙판론으로 바꾸어놓으셨더니 그분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거룩한 기상은 과연 지구를 통채로 흔들어놓을만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근위 서율류경수제 105탕크사단을 현지시찰하신 소식이 당보의 지면들을 꽉채웠던 지난해 1월을 잊을수 없습니다.

원주의 아성을 단숨에 짓뭉개버릴 렬적의 동음을 요란히 울리며 눈덮인 산야를 누벼나가는 무적의 철갑대오의 님치는 용맹과 기개를 보면서 저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더우기 세인을 놀래운 바로 그날의 훈련에 백두령장의 기상파 슬기지를 지니신 존경하는 대장동지께서 친히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티져나오는 찬란속에 그이의 깊으신 심종을 감히 헤아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이의 깊은 심장에서는 암록강과 다박술언덕의 눈보라와 더불어 드높은 맹세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있었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퍼로씨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혼신을 다 바쳐 지켜주신

계승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온 1월파 더불어 더욱 빛을 뿐이고있습니다.

백두의 해동이순간과 같은 환희로 온 나라를 끓어번지게 하시며,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한 원쑤들의 온갖 억측과 외곡, 양설들을 일거에 쓸어버리며 조국과 민족, 세계 앞에 그처럼 자신감에 넘쳐 척척척 발걸음을 내짚으신 우리 대장동지!

이것이 바로 눈보라 휘몰아치던 1월의 그날 그분의 심장을 끓이던 열정이고 각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대장동지의 그날의 모습에 압록강의 1월과 다박술언덕의 1월과 함께 승승장구해온 주체의 선군위업, 애국위업을 반드시 최후승리에로 이끌어가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력히 비껴있었습니다.

1월파 맷은 절세의 위인들의 류다른 인연, 이것은 백두산장군들의 종대혈통을 생명선으로 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는 우리 혁명의 편연이고 이 하늘아래 이 땅에 달리는 될수 없는 애국의 고귀한 계승입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존엄을 떨치자면 만경대와 백두산의 애국의 혈통을 이으시고 그 넓은 기개로 영원한 승리의 길을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심으로 받들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사에 새겨진 사연깊은 1월이 우리모두에게 깨우쳐주는 만고의 전리입니다.

*

1월 8일, 올해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인민은 새해의 첫문을 열자마자 대장복 넘치는 1월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산과 들을 하얗게 덮으며 소담하게 내리던 그 눈송이들은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하늘의 축복인듯싶었습니다.

우리의 랑만과 환희가 비껴 한없이 아름답고 뜨거운 백설의 강산에 영원한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붉은 기폭의 페리임소리처럼 천만민의 머리우에 더 힘차게 울려펴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백두의 붉은기높이 끝까지 가야 할 이길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멀치리

위인과 우리의 설명절

사람들 모두가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해 애국의 발자취를 새겨가는 이 땅에 설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축판이며 형형색색의 장식품들이 명절분위기를 둘구고 끊곳에서는 아 이들의 이채로운 민속놀이가 한창이여서 거리와 마을마다 민족적정서가 질게 풍기고있다.

흥겨운 민족체육경기와 구성진 민요가락이 훌려넘치는 우리 춤, 우리 노래무대를 펼치고 떡국과 지짐, 국수, 신선로를 비롯한 갖가지 명절음식으로 즐겁게 쉴 설명절이다.

민족의 전통적인 설명절 풍속을 면면히 이어갈수록 유구한 혁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겨례의 민족성을 이어주시고 더욱 빛을 뿌리게 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현신의 로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크나큰 신심을 기울이시였다.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있는 민족성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고 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과 애국위업실현에서 그를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0년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바람으로 지구상 곳

에서 외색, 외풍이 어지럽게 떠돌았다.

공화국이 혁신과 농민운동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때 제국주의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국도에 달하였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리고자 하는 것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 한 문제로 보신 장군님께서는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해도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더욱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수한 민족문화전통과 풍습이 온 나라에 더욱 활짝 꽂퍼나도록 하시였다.

몇 해 전 2월 어느 날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이 조선을 영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만들리라,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인민을 세계에서 제일 문명하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눈보라 휘몰아치던 1월의 그날 그분의 심장을 끓이던 열정이고 각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대장동지의 그날의 모습에 압록강의 1월과 다박술언덕의 1월과 함께 승승장구해온 주체의 선군위업, 애국위업을 반드시 최후승리에로 이끌어가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력히 비껴있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지금 온 겨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날대기로 맞내이기 위한 거족적인 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절절한 지향과 험원을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협회, 성명은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중대결단이며 애국애족의 대용단이다.

련합성명과 그 실현을 위한 북남대화제의들과 선의의 조치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편을 이은 동포들이 서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되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려는 뜨거운 진정과 아량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지난해 불과 불이 오가는 최근단상으로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야말로 무력충돌의 광풍이 험악하게 몰아친 조선반도였다.

전쟁에 직면했다고 세계가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 우리가 자체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무서운 재난과 불행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 엄중한 사태가 방임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실로 최근단위기의 마지막계선에서 우리는 민족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인내와 행정을 발휘하였다.

참혹한 전쟁위기는 넘겼으나 결코 가서 진 것이 아니었다.

남쪽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결적폭언이 계속되고 북침을 노리는 불장난소동이 끊

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에 남조선당국은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는식의 우통과 모두를 일삼는가 하면 민간인들의 북남해왕과 접촉에 빗장을 치르고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주장하는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을 『천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되어 세기와 날대를 넘으며 세월의 난리를 예순여섯돌기 새기도록 반복될지이며 싸우고도 아직 그것이 모자란단 말인가.

그로 해서 치른 회생인들 얼마이며 헛되이 소모된 재부와 시간 또한 얼마나인가.

그 사이 갈라진 혈육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한을 품은채 떠나간 부모형제는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비극적이며 수치스러운 비정상사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하면서 우리의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과 무조건적이고 폭넓은 북남대화제의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화합과 평화의 새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서로 찾고 부르며 북으로, 남으로 오가던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때는 다 몰랐지만 오늘 더더욱 그리워지는 6.15이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이 땅에 평화를 안아오고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울수 있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시대와 혁사앞에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는 왔다.

그 누구든지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북에 살진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제도, 정경

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데 총결기 해나서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전쟁을 막고 대결을 해소하며 북남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도이다.

북남대화에서 기본은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대화이다.

지금 북남사이에는 민족의 사활과 관련되는 수많은 중대사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것은 대부분 당국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대화와 협상의 마당은 이미 마련되었으며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문도 열려 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폭넓은 대화제안에 응해나서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이미 제기된 모든 북남대화들을 무조건 친체없이 성근히 응해나올것을 호소한다.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 북과 남의 정치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땅에 래를 물고사는 어느 정치인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오늘의 불행과 전쟁위험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계급과 계층,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전에 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민족을 최우선에 놓고 민족을 위한 대의에 개별적정치집단의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대법하게 복종시키며 화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겨례의 대행진의 앞장에 서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쌍무적, 다무적협상을 적극 진행해나갈것을 정중

히 호소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광범한 민심파온 겨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

사상과 제도, 정권과 신앙이 다르다 하여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의 동포들이 접촉하고 대화할수록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여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련대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적극 호소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메아리가 친구처럼 그날처럼, 백두와 한나에서 통일의 환호성이 높이 울리던 6.15의 감격적인 그날처럼 다시 한번 겨례의 통일합성이 온 강산을 진감하게 하자!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대결의 랭기를 가시고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차넘치게 하자!

온 민족이 떨쳐나 겨례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금강산과 개성관광의 길을 하루빨리 다시 이으며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해나갈 때 평화와 통일이 그만큼 더가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

론인 등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북남매왕과 접촉, 협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적극 장려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떨쳐나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오늘의 미국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미국정부가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당국을 대결에 부추기며 북과 남의 불신과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격하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물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날로 로끌려되는 남조선, 미국, 일본 3각군사결탁을 단호히 반대해 격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동을 짓부서버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사태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협회, 성명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에 국의 대행진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뜨거운 국제총장과 통일의 지로 만난을 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올해에 기여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감으로써 조선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세계만방에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제 100(2011)년 1월 28일 평양

대화와 협상은 문제해결의 방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의 련합성명은 나오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

그것은 이 제안이 현 시점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사이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도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조치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온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힘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려는 것이다.

오늘 최악의 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유일한 방도는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

누구든지 전쟁을 바라지 않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원한다면 대결할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앉아 대화를 하여야 하며 민족의 중대사들을 협의해결하나야 한다.

대화만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북남관계를 겨례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길이다.

반면에 대결과 힘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고 오히려 불신을 더욱 증대시

기고 충돌과 전쟁을 초래 할수 있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술기롭게 해결하고 겨례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좋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열리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협의할수 있게 될것이며 서로의 리익에 맞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갈 합리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전 공화국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처하여 주도로 북남과 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공개서한을 남조선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간 회담의 제도로 협정시ки려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모든 군사적 협안문제들을 고위급군사회담에서 협의해결함에 대한 이 새로운 제안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려는 공화국의 의지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족번영을 위한 선차적 과제

현시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이루는 것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선차적 과제이다.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민족의 생존을 지킬수 있고 나아가서 통일과 번영도 이루어나갈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북남사이의 대립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감소할데 대처하여 주도로 북남과

민족적번영은 민족성원들의 안녕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위한 조선과 환경을 요구한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만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다.

이와 반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지게 된다.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염울것은 외세뿐이다.

민족이 있고서야 통일도 번영이다.

평화보장은 대화와 협력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나서고 있다.

평화는 우리 민족의 안전과 민족번영의 길을 담보해주는 전쟁으로 된다.

민족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자면 그 실현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평화적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결과 전쟁위험이 절개 떠도는 속에서는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접촉, 협력사

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는 오늘에 대하여 계속 벌링것이란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예비군부대를 전방에 직접 배치하여 현역부대와의 공동훈련도 벌리게 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례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민족의 운명이고 조선반도의 미래이다.

온 겨례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결과 되게 되어야 한다.

평화가 이처럼 소중함에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대결과 전쟁소동에

는 대결과 전쟁소동에

본사기자 김철호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의 즉시 적용을 요구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를 반대하는 련합체와 성원들이 12일 일본내각부와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제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폭조가 더 벌어졌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 간접하지 않고 지원제의 법적적용을 즉시 최종결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은 조선학교지원제의 적용을 요구하여 횡단막을 들고 베라를 뿐이며 거리전 활동을 벌렸다.

본사기자 주광일

조한 모략극이라는것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조봉암에 대한 살인재판을 벌여놓았으며 끝내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이 사건의 내막은 오랜 기간 후막속에 가